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恭
印刷人 方又榮
主幹 宋赫
編輯部長 孫政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鄭在覺博士 第9代總長에 就任

7月1日 中講堂서 離·就任式거행

尹月下이사장의 주재로 열릴 이날 이사회에서는 京城帝大 法文學部를 졸업한 이래 고려대교수로 재직하면서 同校 학생처장, 교무처장, 문과대학장, 대학원장등을 역임한 鄭在覺박사를 제9代 총장에 선출, 27일 文敎部 승인을 거쳐 오는 7월1일 중강당에서 新舊總長 離·就任式을 갖게되었다.

新任 鄭在覺총장은 史學界의 泰斗이며 특히 東洋史분야의 권위자로서 그동안 「世界文化史」, 「歷史의 餘韻」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을 통해 학계발전과 후진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지난 62년부터 1년간 美國 하바드대학에 교환교수로 다녀온바 있다.

한편 지난 74년 취임, 재임기간동안 본교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남긴 李瑄根前總長은, 전통문화의 재발굴과 주체적문화및 가치관정립을 목적으로설립하여(오는 30일경예정) 韓國學研究의 총본산이 될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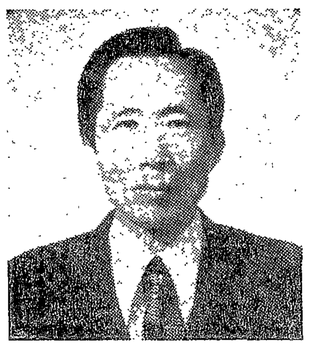
新任 鄭총장의 이력 및 중요 著書는 다음과같다.

◇鄭在覺 9代總長 약력

▲慶北 尚州출신(1913년생 만65세) ▲37년 경성제대 法文學部 史學科졸업 ▲46년 國學專門學校(國學大學前身) 교수 ▲47년 同校 학생처장, 교무처장 ▲同校 學生處長·敎務處長·文科大學長·大學院長등 역임 ▲55년 韓國 中國學會 會長및 編輯委員(現) ▲57년 아시아問題연구소 所長및評議員 ▲62년 美國 하바드大學 交換敎授(1년간) ▲64년 東洋史學會會長(現) ▲65년 高大에서 명예 文學박사 취득

◇著書=▲世界文化史 ▲東아시아의挑戰(共著) ▲歷史의 餘韻

◇論文=井田問題의 新展開 ▲동양학의 叙述問題 ▲東洋史學의 회고와 전망 ▲동양의 역사적 현실 ▲동양사학의 반성 ▲중국인의 歷史觀 ▲동양사회와 專制主義論 ▲民族主體意識과 근대화 ▲민족의 再發見 ▲民族文化와 外來文化 ▲四月革命의 역사적 考察 ▲譯註 大典會通 兵制篇 ▲註解 唐韓國 외 교문서(清篇) 등 다수.



◇新任 鄭在覺總長

夏季奉仕활동計劃 확정

8個部隊 편성 事前敎育

14日부터 忠北 報恩一帶서

대학생의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夏季農漁村奉仕活動이 본교에서는 오는 7월14일부터 충청북도 報恩郡 일대에서 집중적으로펼어진다.

農硏등 세마을부 7개서클(8個부대)로 편성돼 24일까지 각부대별로 10일간 식 실시될 이번 봉사활동에는 鄭允武 학생처장등 교수와 남학생1백78명, 여학생 58명등 2백36명이 參加 盛夏에 젊은 의지를 펼치게 된다.

봉사대원들은 봉사현지에 도착하여 부락민을 부녀반, 아동반, 4-H반등으로 나누어 농토확장및 보수, 농가 부업지도, 어린이 정서지도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하계 봉사활동 발단식은 오는 7월7일 오전11시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있게되며 이어 오후 1시부터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奉仕活動전반에 걸친 사전교육을 받는다.

각 부대별 일정및 봉사지는 다음과 같다.

▲제1부대 KUSA(지도교수=鄭允武, 代表=이성철·化工3) ▲15~24일, 忠北報恩郡 수한면 ▲제2부대 길(지도교수=손奚奪, 대표=이덕휘·電算2) ▲14~23일, 산외면 ▲제3부대 P·T·P(지도교수=朴昌碧, 대표=손태경·영문3) ▲14~23일, 보은군 회북면 ▲제4부대 보은연(지도교수=邢基柱, 대표=김찬용·사교3) ▲14~23일, 보은군 마로면 ▲제5부대 MRA(지도교수=李寀永, 대표=이덕휘·電算2) ▲14~23일, 보은군 삼승면 ▲제6부대 젊은새이웃(지도교수=辛孝善, 대표=구제영·經營2) ▲15~24일, 보은군 누한면 ▲제7부대 농연A(지도교수=李寀東, 대표=현재근·농학3) ▲15~24일, 보은군 산외면 ▲제8부대 농업B(지도교수=金熙坤, 대표=노선철·農經2) ▲15~24일, 보은군 내속면.

G建物앞 車道 포장

運動場 보수공사도

춘무처에서는 학생회관—후문간의 인도포장및 저수평크 공사에 이어, 많은차량이 출입하는 G건물앞운동장의 차도포장공사와 대운동장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22일부터 4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실시하고 있는 대운동장 보수공사는 운동장 지면에 1백트렉분의 황토를 깔아, 운동선수 및 학생들의 운동정이용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G건물앞 차도포장공사는 많은 차량의 무질서한 출입으로인한 소음및 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한것인데, 2천만원의 예산을투입, 테니스 코트쪽으로 폭8m, 길이 2백40m의 도로를낼 예정이다.

釋林會 순회 布敎

全國 22個都市서

釋林會(회장=黃日面·僧伽4)의 제9회 전국순회포교가 오는 7월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에걸쳐 인천용화사를 비롯 전국22개 도시에서 있게된다.

부처님의 거룩한뜻을 전국에 널리 펴기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이포교는 올해로 9회를 맞게 되는데 9일까지 설법과 염불대회 및 합평회를 갖게된다.

나누어 제1조는 강원·영남지방을, 제2조는 충청·호남지방을 각각맡아 포교사 12명씩 파견, 군부대등에서 포교활동을 펴게된다.

한편 법주사에서 갖게되는 同會제5회 수련대회에는 金雲學, 宋錫球교수, 張二斗스님(법주사 주지)을 지도 교수로 7월6일부터 9일까지 설법과 염불대회 및 합평회를 갖게된다.

佛敎學術 발표회

本校 敎授등 6명 발표

서는 78년도 결산보고및 79년도 사업계획 論議,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會長에는 洪庭植박사가 3선되고 부회장에는 李智冠박사가 유임되었다.

이날 발표한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

▲「萬海의 佛敎靑年運動考」=睦相培(佛大교수) ▲「龍樹의 佛身觀」=李鏡淳(佛大교수) ▲천책의 湖山錄=李永子(佛大교수) ▲靈珊의 輪廻와 因果法=元暎一(부산대교수) ▲「元曉의 一心二門과 退溪의 理氣論」=宋錫球(佛大교수) ▲知訥의 三種門 修(禪林大) 지도교수및 회원들이 지난 16日(金) 孔燮 교수=鄭允武, 代表=이성철·化工3) =15~24日, 忠北報恩郡 수한면 ▲제2부대 길(지도교수=손奚奪, 대표=이덕휘·電算2) =14~23일, 보은군 삼승면 ▲제3부대 P·T·P(지도교수=朴昌碧, 대표=손태경·영문3) =14~23일, 보은군 회북면 ▲제4부대 보은연(지도교수=邢基柱, 대표=김찬용·사교3) =14~23일, 보은군 마로면 ▲제5부대 MRA(지도교수=李寀永, 대표=이덕휘·電算2) =14~23일, 보은군 삼승면 ▲제6부대 젊은새이웃(지도교수=辛孝善, 대표=구제영·經營2) =15~24일, 보은군 누한면 ▲제7부대 농연A(지도교수=李寀東, 대표=김찬용·사교3) =15~24일, 보은군 산외면 ▲제8부대 농업B(지도교수=金熙坤, 대표=노선철·農經2) =15~24일, 보은군 내속면.

◇전국佛敎學術會議가 지난 10일 본관교수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各部다양한 洞探部, 일본 遠征探査도

夏季방학을 맞이하여 洞窟探險部가 일본 원정탐사를 하는등 山岳, 水探部는 각기 부의 특성을 살려국내외 탐험및 등반을 계획하고 있다.

洞探部(회장=李相旭·物理3)에서는 이해동(農生科)교수를 대장으로 8명이 27일까지 제주도의 빌레못동굴, 단장굴등 제주도 일대 동굴 탐사를 오는 11일부터 8일간 실시한다. 또 한 同部는 정기 하계 동굴탐사를 실시한다. 1980년 월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참가자는 20명이 참가하여 서울, 원동간에서 카라반및 極地法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본교 최초로 夏季원정을 맞이하여 洞窟探險部가 일본 원정탐사를 하는등 山岳, 水探部는 각기 부의 특성을 살려국내외 탐험및 등반을 계획하고 있다.

洞探部(회장=李相旭·物理3)에서는 이해동(農生科)교수를 대장으로 8명이 27일까지 제주도의 빌레못동굴, 단장굴등 제주도 일대 동굴 탐사를 오는 11일부터 8일간 실시한다. 또 한 同部는 정기 하계 동굴탐사를 실시한다. 1980년 월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참가자는 20명이 참가하여 서울, 원동간에서 카라반및 極地法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본교 최초로 일본 遠征探査도 계획하여 이달 말께 떠나게 되는 李總長에게 金一亨사단장이 全 東國人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표창받은 우수서어클은 다음과 같다.

◇우수서어클

▲동그라미사진회▲중국인학회▲민속극연구회▲동악2우회▲불교학생회▲KUSA▲프로젝트동우회▲MRA▲석림회

農村現場實習

農大生백여명參加

農學科와 林學科 하계농촌현장실습이 오는 28일부터 각과 지도교수의 순회지도 아래 실시된다.

방학을 이용하여 理論의 재확인및 전문적 기술습득을 위한 이번 현지실습에서 농학과는 珍島농협 채종장등 8군데, 林學科는 서울 양묘사업소등 4군데에서 총 1백17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現場實習에 對備 농학과와 임학과는 오는 28일 오리엔테이션을갖는다.

幹部·優秀서클 表彰

護國團 李總長에 感謝牌

본교 동창회 정기총회가 지난 17일(土) 중강당에서 열려 지난 회기 사업보고및 명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白性郁박사를 명예회장에, 崔載九(국회의원)동문을 회장으로(유임) 각 선출하는등 임원선출을 하였다.

◇崔載九동창회장

이날 정기총회는 3부로 나누어, 제1부는 오후3시부터 崔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李瑄根총장의 축사, 李瑄根總長에게 功勞牌를수여한다음 「동국을 빛낸동문」에 축하패를 80여명에게 전달하는순으로 진행되었고 2부에는 임원 선임이 있었다. 제3부는 성상암 캠퍼스에서 가든파티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참석한 1천여 동문은 서로 우의를 돈독히 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선임된 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白性郁(제2대총장·동문)

◇고문

▲鄭斗石(제3대 총장·31年 中央佛專) ▲趙明基(제5대총장·〃)

◇회장

▲崔載九(국회의원·51年國文科)

◇부회장

▲金遇服(51敎外·강남터미널주식회사대표이사) ▲文泰植(49年 惠專·아주산업대표) ▲黃明秀(53年 敎外·국회의원) ▲金聖涉(53年敎外·대한모방대표) ▲박동호(57年·대한모방대표) ▲朴愚會(60年英文·대한 재보험 대표) ▲安鍾烈(69年 行政·국회의원) ▲유주형(57年 農學·대성모방대표) ▲이중호(58年法學·대한중외제약대표)

貿易士, 대거 合格

韓柱瑄(貿易·4)君등 21名

한국 무역협회에서 시행한 제3회 貿易士 자격시험에 본교에서는 韓柱瑄(貿易·4)君등 모두 21명이 合格하는 개가를 올렸다.

지난 4일 본교에서 실시된 이번 무역사 자격시험의 전형 과목은 무역실무, 무역영어, 관세법, 외환관리법, 무역거래법으로 총 4백69명의 합격자 가운데 본교에서 21명이 대거 합격한 것이다.

이번 貿易士시험의 合格者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정일(貿易·4) ▲이승원(〃) ▲박주선(〃) ▲고낙현(〃) ▲정찬교(〃) ▲김용남(〃) ▲강규변영신(〃) ▲최희재(貿易·3) ▲강상구(〃) ▲이성(〃) ▲강상구(〃) ▲이기영(〃) ▲윤영문(〃) ▲윤주용(〃) ▲최종열(〃) ▲조기철(〃) ▲김진국(貿易·2) ▲손진근(經營·3) ▲김길락(〃·2) ▲이기경(經經·3) ▲이홍정(英文·2) 〈이상 21명〉

釋林「원고모집

詩등8月15日까지

釋林會(회장=黃日面·승려)는 「釋林」원고 모집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1. 詩등 8월15일까지 모집
2. 12월에 게재할 시등 원고를 오는8월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考試 對備特講

7月19日부터 1個月간

考試班지도교수=李淳容)에서는 오는 7월19일부터 행정고시에 대비, 고시 특강을 실시한다.

오는 8월19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특강은 考試班員, 學部在學生및 各級大學院生을 대상으로 민법총칙, 재정학, 국사, 경제학, 행정학등 行試과목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수강신청은 오는30일(金)까지 고시반 전용 열람실에서 접수한다.

佛敎學術 발표회

本校 敎授등 6명 발표

水探敏部(회장=이재덕)는 지난 16日(金) 孔燮 교수=鄭允武, 代表=이성철·化工3) =15~24日, 忠北報恩郡 수한면 ▲제2부대 길(지도교수=손奚奪, 대표=이덕휘·電算2) =14~23일, 보은군 삼승면 ▲제3부대 P·T·P(지도교수=朴昌碧, 대표=손태경·영문3) =14~23일, 보은군 회북면 ▲제4부대 보은연(지도교수=邢基柱, 대표=김찬용·사교3) =14~23일, 보은군 마로면 ▲제5부대 MRA(지도교수=李寀永, 대표=이덕휘·電算2) =14~23일, 보은군 삼승면 ▲제6부대 젊은새이웃(지도교수=辛孝善, 대표=구제영·經營2) =15~24일, 보은군 누한면 ▲제7부대 농연A(지도교수=李寀東, 대표=김찬용·사교3) =15~24일, 보은군 산외면 ▲제8부대 농업B(지도교수=金熙坤, 대표=노선철·農經2) =15~24일, 보은군 내속면.

敎養學部 讀後感募集

最優秀賞에 賞金5만원

교양학부(部長=李昌馆박사)에서는 지난26일 교양도서 독후감 현상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교양학부생의 정서함양과 독서의욕을 고취하기위해실시되는 이 독서공부르리독후감 모집기간은 9월4일(月)부터 23일(土)까지로 신청학생은 지정도서중 자유로 1冊이상을 선택(2권이상 신청자는 선발에서 우리말), 원고지20매내외의 독후감을 지도교수를 통해 교양학부에 제출하면된다.

교양학부에서는 1차 원고심사와 1차에 통과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 구두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되며 각종 상금도 마련된다.

<시정도서>

▲生命의 起源(L·E오들) ▲孟子力學的인 世界像(도모나가) ▲二重나선(왓슨) ▲카인의 後裔(黃順元) ▲카라마조프家의 兄弟들(토스토에프스키) ▲에머슨隨想錄(에머슨) ▲禪과 精神分析(에리히프롬) ▲民族과 歷史(李基白) ▲法과 社會(M·M·라이) ▲역사와 人間(E·H·카아) ▲自由(J·S·밀)

「菩提樹」원고모집

30日까지 編輯室로

여학생대표(대장=이송조경4)에서는 「菩提樹」6집에게 재활원고를 모집하고있다.

모집분야는 학술논문 평론 소설 15일까지 수필 등으로 오는 15일까지 「보리수」 편집실 (여학생간부실)로 제출하면 된다.

工大生 現場實習

天一社등産業體서

夏期放學을 이용한 工科大學生들의 산업체 현장실습이 오는 7월 15일부터 4주간에 걸쳐 天一社등 20여개 산업체에서 실시된다.

산업 교육 진흥법에 의거해 현장실습 義務학과인 전자, 전기, 화공과생들의 학습 이론 전반에 걸친 실습을 받게 된다.

水探 創立 10周年

16日, 探査活動강화 다짐

水中探險部(회장=이재덕)창립 10주년 기념 공배훈박사는 격려사를 통해 『賦存資源이 언제보라도 海底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며 『이에발맞추어 水探部는 探査활동에 더한층 더욱 열심히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념식이 끝난 후 「해저탐사와 해양법」에관한 영화상영과 축하 다과회도 있었다.

警行科特講

15日유흥수씨演士

警行科 特講이 지난 15일(水) 유흥수씨(治安本部 제1부장)를 연사로 「바람직한 警察像」이란 주제하에 G건물 특강실에서 있었다.

경행과 교수·학생 약 1백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特講에서 유부장은 강연을 통해 『民主警察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선도·계몽하여 민주사회 질서확립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佛敎 學術會 禪雲寺등 6개寺刹

佛敎學會(회장=朴泳棟·불교3)하계수련대회가 지난 7월10일부터 8일까지 禪雲寺(全北고창군소재)등 6개 사찰에서 있게된다.

회원들의 신수양을 위한 이번 수련대회는 韓國佛敎 (佛大) 교수들로 10일부터 4일간 선운사에서 참선·독경·법문파 토론을하게되며, 내장사·백양사·송광사, 선암사·홍국사양사등을거쳐 18일에는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총평가회를 참가 신청은 오는30일(金)까지 서어클룸으로 하면 된다.

◇朴聖昊씨

朴聖昊氏停年

勤續24年만에

本校 譯經院 업무부장으로 재직하던 朴聖昊씨가지난 20일자로 근속 24년만에 정년퇴직했다.

朴聖昊 전역경원 업무부장은 24년 경북 醴泉에서 出生, 예천 용문사 1강원 고등과를 수료한후 경원 업무부 근무하던 중 1964년 본교로 부임, 재단사무국, 총무처, 교무처등에 근무하면서 각 과별 배정인원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전자과=3, 4학년 15일~8월15일 ▲20명 ▲화공과=3학년 15일 7월21일~8월19일 ▲전자과=3, 4학년 15일~8월15일 ▲20명 ▲화공과=3학년 15일 7월21일~8월19일.

「보리수」

五食

모양이다. 큰 술병, 작은 술병, 이러기도 한다. 人間이 어쩌구니 없이 타자를 안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올바로 사람답게 살기위해 먹어야 하는 다른 네가지를 法喜食, 禪悅食, 願食, 解脫食, 慈悲食이라고 한다.

사람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밥을 먹고 빵을 먹는다. 그러나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精神的 糧食이 있는 법이다. 그것을 사람들은 책을 읽기만하면 되고 철학강의나 듣는 줄로알고 있다. 사람이 진실로 生命다운 生命力을 누리며발휘할 수 있도록 먹어야 하는 양식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念食이다. 항상놓바른생각, 正念을 간직하는것이다.

衣·食·住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의미와 목적과 방법, 전반에 걸쳐 올바른 생각을 하는것, 그것이 法喜食이란 이 세계 없이도 우리가 잘산다고 와 우주, 그리고 인간계 열심히 먹지만 아무 소치 않는 法을 알고 마음을 俗稱 「밥통」이라고 과 함께 사는 것을 기한다. 요새 어느 자리에 뻐하는 것이다.

서 들으니 사람 몸집을 「술병」이라고도 부르는 또 禪悅食이란 것은 이렇게 法을 알았으니 法食이다. 善願食이다. 願을 갖고 살지, 마지못해 끌려 다니지 않는 것이다. 四弘誓願하는 마음으로 萬事를 해나간다.

네째는 願食이다. 誓願을 갖고 살지, 마지못해 끌려 다니지 않는 것이다. 四弘誓願하는 마음으로 萬事를 해나간다.

다섯째는 解脫食이다. 自由自在, 항상 걸림없는 마음으로 남의 탓, 자기 자신의 탓, 그런 탓 탓할 것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今生에 안되면 來生에라도 이 음식 잘 먹을 수 있어야만 우리의 生命力은 온전해지는 것이다.

<學筵 永>

今週一言

惡心於生
還自壞形
如鐵生垢
自食其身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 도로사람의 몸을망친다. 마치 녹이 쇠에서 나서 바로 그 쇠를 먹는 것처럼 어진이는 이것을 깨닫는다.

<法句經>

"TO LOVE, TO USE WISDOM, AND TO CREATE"

새로운 시대
21세기에 대한
럭키그룹의 꿈。

세계 12개 나라에서 18~24세의 젊은 남녀 2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느 외국기관의 조사 결과, "서로 사랑하며, 슬기롭게 삶을 창조"하는 것이 21세기에 대한 젊은이들의 꿈이었읍니다.
국적, 국경, 언어, 종교, 역사, 전통, 그리고 문화를 초월한 젊은이들의 꿈이었읍니다.
저희 럭키그룹 내의 18개 회사, 하나의 문화재단, 그리고 하나의 학원은 젊은이들의 이런 꿈을 익히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갖은 힘 다해 노력하렵니다.

럭키그룹 會長 具滋暻

株式会社럭키 (화학원료, 프라스틱제품, 유지제품, 식품첨가물)
半島商事株式会社 (종합무역상사)
株式会社金星社 (가정전기제품 및 전자제품)
金星電線株式会社 (전력, 통신용전선 및 케이블)
金星通信株式会社 (교환기 및 유선통신기기)
韓国콘티넨탈카아본(株) (타이어등 각종 고무제품용 카아본 블랙)
럭키開発株式会社 (건설업)
金星電気株式会社 (방송기기 및 무선통신기기)
喜星産業株式会社 (광고 대행업)
国際証券株式会社 (유가증권의매매및 위탁매매, 유가증권의 중개또는 대리업)
金星計電株式会社 (산업용 전기기기 및 계측기기)
金星精密工業株式会社 (정밀전자기기의 생산, 제조, 정비)
럭키海外建設株式会社 (해외건설업, 토목, 건축, 전기, 설비)
湖南精油株式会社 (정유 및 석유제품)
韓国鉱業製錬株式会社 (금, 은, 동, 연, 제련)
汎韓海上火災保険(株) (각종 보험업)
株式会社国際新聞
釜山文化TV放送(株)
財団法人蓮庵文化財団 (장학 및 육영사업)
学校法人蓮庵学園 (연암축산전문학교)

社說

試驗과 放學

금학년도 一學期末試驗이 26일부터 進行中이다. 3、4학년과 1、2학년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 시험은 7월5일이면 모두 끝난다. 시험이 끝나면 사실상 夏期放學을맞이한다. 여기서 우리는 學期 單位로 이루어지는 大學生活에 있어 學期末은 學期初에 못지 않는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발랄한 意慾으로 새로운 計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學期初라면, 學期末은 당초의 計劃대로 일마만큼 成就되었는가 하는 것을 決算해보는 時點인 까닭이다.

한 學期를 決算하는 것은 一定基準을 根據로한 量的計數나 客觀的評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한 學期中에 이수한 敎科目別로 시험을 보고 그 成績이나 學點에 따라 一定基準의 判斷을 "하는 制度的인 과정이 엄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大學生活에 있어 決算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客觀的인 評價나 判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個個人의 自己省察을 강조하는 主觀的意味이다. 이 점에서 한 學期의 결산은 學點取得이나 졸업 成績의획득에 滿足하기 보다는 한결음나아가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自己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간 우리의 大學街는 勉學의熱氣가 계속 상승의 경향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他律的이거나 皮相的인 것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본대학의 경우, 각종 극가고시나 자격시험에 대거 합격하고 졸업생들의 취업률 또한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는 학생들의 自信感과 自律的인 勉學의 질서가 深化되고 있음을 明白히 해주는 것이된다. 大學의 학구적인 분위기는 大學存立의 基本이라 할 수 있다. 大學人의 生命은 무엇보다도 學究的 분위기를 숨쉬는데서 유지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反學究的인 요소는 大學人의속상이 있다면 결국 학생 스스로 大學人의 존엄성과 명예를 毀損하는 결과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學期의 意味있는 결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시험에서도 自律的인 勉學의 성과들보는 데는 이러한 客觀的인 評價나 判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個個人의 自己省察을 강조하는 主觀的意味이다. 이 점에서 한 學期의 결산은 學點取得이나 졸업 成績의획득에 滿足하기 보다는 한결음나아가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自己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간 우리의 大學街는 勉學의熱氣가 계속 상승의 경향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他律的이거나 皮相的인 것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본대학의 경우, 각종 극가고시나 자격시험에 대거 합격하고 졸업생들의 취업률 또한 계속 높아지고있다. 이는 학생들의 自信感과 自律的인 勉學의 질서가 深化되고 있음을 明白히 해주는 것이된다. 大學의 학구적인 분위기는 大學存立의 基本이라 할 수 있다. 大學人의 生命은 무엇보다도 學究的 분위기를 숨쉬는데서 유지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反學究的인 요소는 大學人의속성으로 미루어 唾棄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들은 學期末試驗을 통하여 學期의 意味있는 결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시험에서도 自律的인 勉學의 성과들보여 주어야 할것이다.

試驗場의 분위기는 평소의 갖실분위기보다 더욱 진지하고 엄격해져야 할 것은 말할 것이 없다. 여기서도 역시 감독자의 감독에의한 他律的인 질서의 유지 보다는 自律性이 강조되는것은 물론이다. 감독자 없는 시험은 소망스러운 것이다. 최근들어 試驗場의 분위기가 매우 진지해지고 있다는것은 놓이 평가할만하다. 학생들은 감독자의有無와 관계없이 공정한 시험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만일 감독자가 있는데도 시험장에서 不正행위가 이루어져 不當한 점적의 평가로나타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냉철한 이성으로 이를 견제해야 마땅하다.

어느 때나 大學人의 고귀한 名譽는 他力에 의해서 지켜지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농농적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不正行爲를 묵인하거나 이에 同調하는 현상이 있다면 결국 학생 스스로 大學人의 존엄성과 명예를 毀損하는 결과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시험장의 분위기가 淨化되고 있다는 최근의 기풍에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도 있다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견제해주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제 곧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된다. 한學期를 결산한 그 結果에 따라 學點을 보고 그 成績이나 學點에 따라 一定基準의 判斷을 "하는 制度的인 과정이 엄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大學生活에 있어 決算이 가지는 의미

賃金시대와 종업원의 士氣

許 衛 〈經營大學院長〉

意慾 유발위한 작업환경 양성

능률향상없는 賃金인상, 物價상승 초래

「達成期待」등 뒷받침돼야

현대의 經濟社會는 그 成員間에서 財貨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을 분담함으로써 받는 급여나 일을 분담함으로써 매체로하여 생활에서 필요한 財貨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교환의 組織社會이다.

따라서 모든 企業의 全成員이 높은 사기로써 열심히 能率的으로 각자의 職務에 임한다면 社會全體로서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은 增加하고 1인當의 배분도 增大하여 생활수준도 향상될 것이지만, 농률의 향상이 없는 급여나 임금만의 인상은 原價의 상승과 수요의 增大로 인한물가앙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농률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士氣이다. 그리고 현대 경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플렌」도 급여나 임금으로서 구입하는 財貨나 「서여비스」가 質的으로 質的으로 저하하는데 문제가 있다. 농률의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 급여나 임금만의 인상은 다른 여건에 있어서 變化가 없는한, 이리하여 「인플레」는 방연히 유발되게 마련이다.

또 단위원가의 상승으로 格鬪爭面에서 국제경쟁력이 악화되어 수출신장에도 志向하는 퇴보로써 輸出立國을 지속적인 經濟成長에도 차질이 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종업원의 사기앙양 문제는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불지라도 앞으로보다 重要視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企業의 입장에서는 財貨나 「서여비스」를 능률적으로 生産함으로서 廉價로 사회에 공급한다는 社會的 役割이나 機能外에도 自體의 生存成長을 위하여서도 經營者나 管理者를 위시 一般從業員에 이르는 企業 全成員의 課題인데도 불구 하고 그 실제에 있어서는 相當히 소홀한 것이 우리의 現實인것 같다.

그리고 個個의 종업원으로서도 그들의 하루중 가장귀중한 「時間帶」를 기업에서보내고 있느니만큼, 그와 같은 귀중한 시간들을 마지못해일을한다는 식으로 마지못해 매일을 보낸다면, 그들은 살한 번뿐인 人生을 意義있게 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입장에서도 강한 의욕과 드높은 사기로서 강한 일을 한다는 것은 偶然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幸運한 일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직무의욕과 그 成員들이 강한 의욕과 드높은 사기로서 能率化가 될 수 있도록 기업요인의 즉 도모될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양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만이 아니고 社會全體의 立場에서 또한 종업원의 立場에서도 결대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高賃金時代는 그 對應策의 한방법으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종적 企業成員 各自의 意思決定에는 마지못해 할것인가를 결정할수가 있기때문이다.

企業의 成員의 職務에대한 의욕을 규정하는 심리적「메커니즘」으로서는 지속적인 「作業環境」과 자신을 이 體觀하는 「同一化」와 자신이 만약 열심히 일을한다면 昇進이나 昇給등에서 期待形成」에 의의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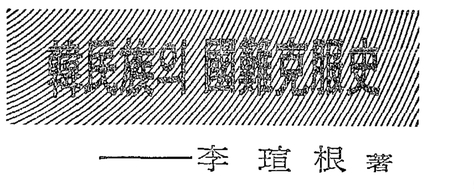
따라서 종업원의 「同一化」의 내상이며 기업의 제요인인 ①從業員이 담업당하는 직무 ②종업원이 소속하고있는 부문 ③上司의 「리선 정비 ④給與制度나 승진제도 ⑤동료자의 인간관계등의 종오란 문제로 대두하게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①종업원이 擔當職務의 수행에있어서 열심참이나 도전감도 는 能力發揮感 能力長感등을 느낄수있도록 할 것 ②종업원이 자재설계 즉 「職務充實」을 기할 것은 물론 자기의 能力 「이미지」나 自己價値感등을 높일수 있도록 할 것 ③종업원이 자신의 목표를 마치 중요한 것처럼 알려준다는 것이다. 끝으로 종업원 각자의 「期待形成」은 한편 부문내의 분위기는 종자극할수 있도록 整成해 나가야하며 ③급여제도나 승진제도는 종업원의 昇給기대나 昇進기대가 가능하도록 직무의 성격이나 농력이 감안되도록 직무급 제정운영 되어야하며 ④경영자나 관리자의 管理行動은 직접적으로는 부하들의 안정욕구나 친지욕구가 충족되면 간접적으로는 직무의 능률향상 등 하여야 하는가 하면 간접적으로는 직무의 능률향상 등 보표설정이나 직무의 협동에있어서 達成期待나 부문과의 동일화가 가능하도록 연구하여야할 것이다. 끝으로 동료자의 인간관계 특히 非公式的 集團의 성격을 활용하는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종업원의 「達成期待」나 상사나 부문과의 「同一化」에 의한 능률향상는 종업원에의 經濟的보수나 地位의 보수에의 기대에 의한 能率化로서 뒷받침하는 일은 중요한 일중자료가 되어준다.

民族의 獨立性 記述

오늘의 國民的 指標 明示



著 李 瑄 根

금번 史學界의 泰斗요 敎育界의 元老인 李瑄根博士가 1975년 5월부터 1년간 國務委員들에게 講義한 國史를 整理하여 「韓民族의 國難克服史」라는 제목으로 刊行하였다. 博士는 古稀을 넘은 老齡으로서 東國大學校總長과 大韓敎聯會長, 文化財委員長등 수많은 公職을 맡아 公務多忙함에도 不拘하고 數年前에 12卷의 大韓國史를 著述하고 이제 또 本書를 刊行하였으니 박사의 정력에 대하여 感嘆하는 동시에 敬意를 표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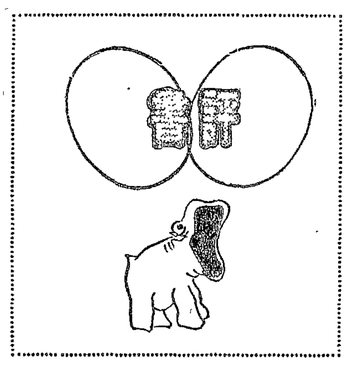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기후가 溫和하고 物産이풍부한 樂土일뿐만 아니라 地脈學上 東北亞細亞의 요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古代로부터 이 江山을 넘내는 異民族의 침략을수 없이 많이 받았다. 고대 中世에는 북방 大陸으로부터 漢族과 鮮卑, 契丹, 女眞, 蒙古의 侵略을 받았고 近世에는 南北倭의 극임없는 挑戰을 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國民의 갈 길을 明示하였으니 國民은 누구나다 한번 읽어야할 優秀한 敎養國史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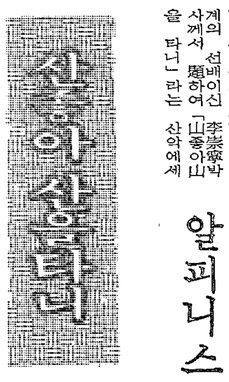
〈徽文出版社刊 값3천5백원〉

□申奭鎬

華嚴思想과 認識理論 접합

自由의 道德哲學的 源泉규명





著 李崇寧

칸트哲學研究

金鎔貞 著

佛敎大學 哲學科 金鎔貞교수의 저서 「칸트哲學研究」가 유림사 발행으로 출판되었다.

칸트의 방대한 哲學體系를 金교수는 한 곳에 모아 3백60頁에 달하는 지면에 체계정연하게 12章을 펴냈다. 특히 현대의 非유클리드 기하학과 相對性理論 내지 現代素粒子 物理學을 科學哲學的인 입장에서 매우 깊게 다루고 있으며 칸트

「山岳研究」통해 學術的 고찰

알피니스트의 숨은 勞苦 그려

□鄭琮

中國·유럽 잇는 交通분기점

파란의 中央아시아—그 盛衰의 종인

人種·言語 다양, 4~8C엔 佛敎융성

<佛敎大敎授>

徐景洙

「실크로오드」를 찾아서

「아프가니스탄의 首都 카불과 그 주변

◇ 실크로오드. 옛東西洋 무역의 길. 그 실크로오드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의 풍물國的 풍습과 역사는 많이 알려져 있지않다. 1976년 6월 交換敎授로 印度에 건너가 네루대학과 델리대학에서연구·강의하고 5월22일歸國한 徐景洙 敎授의 기행문을 통해 이들을 알아본다.

「活動費 조달위해 막노동까지」

뛰는 試監에 나는 컨닝술?

「人權宣言」의 眞實

「人權」의 眞實

「人權」의 眞實

◆건전한 음악은 건전한 사회를 이룬다◆

클래식 음악감상을 겸한 젊은 지성인의 휴식처

다동

—주간 음악감상실로 OPEN—

AM11~PM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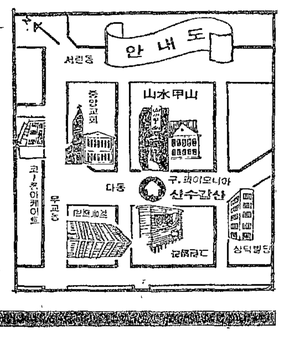
*고객을 매혹하는 국내유일의 7인조 실내악단

*테너 황철 / 소프라노 양소자 바리톤 김관수

주간 : 차와 경양식

야간 : 맥주와 칵텔(각종위스키)

서울중구다동 51~14번지 (777) 3125·4056



당신도 유창한 영어를 말할수 있읍니다

언어 익힌 言語는 교정이 매우 쉽읍니다. 특히 外國語는 가장 빠르고 정확히 배워야 쉽니다

당신은 지금이영어회화를 배울때라고 생각하지않으십니까?

☆본학원은 지성인들에 의하여 선택된 학원입니다

Dave Scofield 원장 석호원

서울·부산·광주 동시개강⇨ 7월 3일

□강사 전원 미국인
□완전한 미국식 학습분위기
□엄격한 정원제 실시(한반 16명)
□중일 연속 강의
□과외활동 매주 8시간 이상
□국내 최대의 어학실습실 및 학생휴게실
□충분한 교재 사용
□어학교수 특수훈련을 받는 최신교수법
□봉사정신으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교사
□냉·난방시설 완비

신흥영어학원 ENGLISH LANGUAGE CENTER

서울·서울위생병원건물☎967-1275, 7521 / 부산·대신동3가507 ☎43-1036, 42-1843 / 광주·충로3가120 ☎3-8903~4

八月施行

中等敎師 試驗對備

(順位考査·學力評價·資格考査)

79學年度

校監昇進 試驗對備

—(100% 的中 總整理指針書)—

最新上·下

敎育學特講

값(上) 2,900원 (下) 2,900원

李大成 敎授外 著名敎授

全國各大學 20名 執筆!

<特色> 解放以後 30年間 各種 敎育學 實際試驗問題및 正答 收錄

◎예상문제1,000題 改錄

서울 YMCA 312호 실에서 著者直講中!!

※校監昇進 一般敎養 9月 初 發行豫定

通閣出版社

서울 YMCA 312호 ☎1161

광화문사서함 969호

대체구좌 : 서울 504316

전국 유명서점에서 판매중!

Lefranc·bourgeois

한국 최초불란서 물감수입 판매

다른 수입 외국품과 동일한 가격

◈유화물감:150색

◈기 름 류:테레핀외 8종

◈염색물감:수용성 18색 염색 방법이나 섬유의 성질에 구애됨이없고 다리미질만으로 열처리가 됩니다.

78년도 4月1日 FRANCE시판

◈도예물감:24색 도자기에 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과정이없이 무늬를 낼수있는 물감

◈포스터칼라:48색 비닐에도 사용

◈아크릴칼라:31색

르프랑 부르조아 한국총판

비원앞 가든타워 1705호 (269) 6006

☆ 70年代 小說文壇에 던지는 새로운 충격!! 새로운 임김!!

쟁이들의 幻想과 世界

崔光烈小說批評集

값 1,800원

☆ 당신은 우리의 70年代 小說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 批評集을 읽어 보십시오.

☆ 당신은 우리의 70年代 小說에 불만입니까? 그럼 이 批評集을 읽어 보십시오.

☆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밝혀졌어야 했을 우리 시대 우리 작가들의 적나라한 虛와 實

☆批評對象作家 : 이 청준. 송 숙영. 유 현종. 김 승옥. 황 석영. 윤 흥길. 이 병주. 이 문구. 송 영. 최 인호. 이 정환. 조 해일. 박 완서. 김 주영. 조 선작. 한 수산. 김 병총. 김 동리(참고) 외 다수

1,200원

진사와 허깨비의 합장

한겨레出版社 ☎712-6240

離婚과 夫婦間의 財産分割問題

婚姻은 夫婦雜方의 合意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고존경·협력하며 한평생의 苦樂을 함께할것을 約束하는 神聖한 男女間의 結合이다。그러므로 婚姻의解消를 意味하는 離婚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것이며 더우기 이는 平和로운 가정의 파탄을 동반하기 쉽기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그러나 피치못할사정으로 夫婦生活을 지속할수 없을경우에도 이를禁止한다면 더욱더 不幸은 커질것이며 J.S. Mill의 말대로 「合法化된 노예제도」가 될 가능성도 排除할수 없다。따라서 어느면에서 본다면 國家가 「정당한 이혼」을 보장해줄 필요성도 있는것이다。

Ⅰ、離婚은 필요악적인 철격을 띠는데, 이 이혼과 동평등의 실현이 선결문제이다

생에 婚姻을 원인으로 발리해야 하고, 또한 이혼은 각자의 새로운 생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生活의 기반을 마련할 財産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여기서 부부간의 재산의 분할문제가 대두된다。

Ⅱ、現行親族法上의 離婚制度

(1) 協議離婚

夫婦는 그 원인여하를 물지않고 쌍방의 協議에 의해 이혼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하며 (民法 제834조) ①당사자간 이혼의사의 合致에 의해 ②未成年者는 부모 또는 後見人의 禁治産者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835) ③家庭法院의 承認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한다(836) 「가정법원의 승인을 받아」란 문구는 改正民法에 새로 삽입한 것인데, 이는 夫의 부당한 權力行使에 의해 이혼이 강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 婦의 보호를위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

(2) 裁判上 離婚

협의이혼제도를 폐하여 個人의 自由와 人權尊重을지향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夫權이 강한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論者가 있다。

그러나 남녀평등이 철저하면 남성의 일방적 권력행사는 어려울것이니, 남녀의 同居·扶養·協調의 의무를 懈怠한 경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즉 배우자에 의한 동거에 참을수 없을 정도의 학대와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에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⑤3년이상 생사가 不明 ⑥기타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 神념·범죄·性交不能·性格의 不一致등 性的·倫理的 精神的·經濟的 제관계를기 준으로 해야될 것이나, 無子는 이혼사유가 안된다고 본다。

이것은 一方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청구해야 한다。(842)

裁判上離婚의 인정은 夫婦의 一方이 고의로 부당한 不同意를 하거나 사실상 同意不能의 경우에 그 意思如何를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소멸시킬수 있게하자는 것이다。

(3) 調停離婚

현행 家事審判法은 裁判이혼에 대해서 調停前置主의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심판관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調停을 신청해야 한다。調停에 있어서 當事者間에 이혼에 대하기도 어렵다。왜냐하면 그것 夫婦共同生活에 필요한 생활수준등은 어느 一方의 재산으로 구입했더라도 共同財産이 인정되고, 所屬不分明한 財産, 特有財産, 夫婦名目의固有財産(婚前財産, 相續·贈與등에 의한 취득한 財産)은 각자의 名義로 취득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특히農業에 있어서 혼인중의 부부는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농산물 전부를 夫가 취득하고, 商業經營도 부인의 家事·勞動·節約등 공동의 노력에 의한 妻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夫가 권리는 전적으로 獨占하고 妻의 內助의 功과 權을 무시되고 夫가 소所有權을 취득하게 되는 상당히 共有推定의 의미는 하에서 滅殺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英國·美國·西獨등은 妻의 內助의 功과 권위를 존중하여 남편의 소득이 독의 반을 妻의 소득이라고 보는 所得分割法을 채택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日本은 판례로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1961、9、6判決)

Ⅳ 放學을 맞게 됐다。새벽 안갯길에 문득 만난 사람에게야 흐뭇한 경의감을 느끼면 것처럼 설름 방학이 우리 앞에 와 있다。우리는 이 뜻밖의 방학이 주는 「야릇함」때문에 아무런 할 말이 없다。한 학기를 운행해온 心身이 성숙의 포만감이나 그로인한 권태로움도 채 감지하기 전에 찾아 온 이 放學은 우리에게 「原色의 손짓」이란 낯만적인 말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왔다。

그러나 그 당혹과 북안의 틈새로 솟아나는 한마디를 우리중 누군가가 발언해도 좋은 「好時節」을 우리는 그리워할 자격이 있을까。우리는 알고 있다。우리가 지내온 한 학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보호해 왔던 허다한 禁忌사항들이 우리를 얼마나 나약하게 길들여왔는지。그러나 정작 그 금기사항들을 우리는 알기하고있지 못하다。그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실증은 갖고 있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떤 유형을 하고 있는지 정작 우리들은 모르고있다。그것은 코가 솝솝한 그물같아서 여기저기 허다한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것, 당신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뿌리치고 돌아서는 당신을 붙든다고 한들 언제나 헤어지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얘기와 情과 치열한 文學精神을 생각하며 안타까와하고 끝내 당신의 可能性으로 곧나버린 당신의 삶이 끝 한 정된 작품이기에 우리는 오늘 당신의 죽음마저 사랑하며 당신의 묵소리를 듣고 있습니다。생전에 당신을 그다지도 괴롭히던 雜多한 世俗의 人間事는 모두 버려두고 가십시오。부디 가셔서 비옥한 땅을 일궈 당신의 꿈과 재주를 하나 가득 키워그 당신만의 향과 애의 낼 孤獨의 혼을 소유하소서。

〈文理大 國文科〉 鄭朝采

故 申鉉敦兄의 靈前에 바칩니다

그 뜨겁게 타오르던 文學에의 열정은 다 어디에 두고

申兄!

당신은 무척이나 고독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創作을 위해 고심할 때도 그러했고, 졸업후 직장에서도 그러했고, 學問의 길을 택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기에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까? 얼마나 孤獨을 좋아 했기에 살아 있는 자에게 죽음이 지척지간에 있음을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보여 주신단 말입니까?

유난히 일찍 찾아든 무더위가 계속되던 지난 4월, 당신이 근무하던 교무실에서 내 생각속의 당신과 실로 오랫만에 만났습니다。그때당신은 옷는 얼굴로 거기 그렇게 앉아있었습니다。

결코 크다고 할 수없는 그 체구와 안경 속에 간직되어 있는 특유의 獨氣, 번뜩쳐럴 眼鏡에 오르내리던 왼손—당신의 특같은 옛모습。그 어느 하나 괜찮스의 잔디밭에 앉아 있던 당신의 모습과 다른 것은없었습니다。

東國文壇을 거친 수많은 선배들을 어찌 일일이 손으로 헤아릴 수있겠습니까마는 유달리 당신에 대한 추억이 진하게 남아 있었던 것은비단 당신이 늘 즐겨 입던 작업복과 고무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달변은 아니었다라도 늘 정연히 펼쳐지던 논리, 古今과 東西의 文學을두루 얘기하던 그 해박한 입술, 유달리 우리의 風物과 人情, 累俗을 아끼며 우리 고유의 것에 묻혀사는 인간의 모습을作品化하기 위해 고심하던 열굴, 그 어느 것 하나 지울 수 없는 정겨운모습이었습니다。

東國의 文脈을 진단하며 정리하던 당신은 후배들에겐 지나치리만큼자상한 선배였고, 合評會場에서는 모두가 겁을내는 날카로운 젊은이였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도처에 있었습니다。강의실에도, 도서관에도, 合評會場에도 文學발표회에도, 中部市場에 질펀히 널려진 장사술에선 먼데 메아리처럼 그저 그렇게 또 울려오는 그 뜨겁게 타오르던 문학에의 열정을 이다지도 싸늘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오늘 이곳에는 생전에 당신과 文緣을 가졌던 동국의 同門들, 그리고 당신의 동료직원, 또 당신이 열과 정을 쏟아가며 가르치던 당신의 제자들이 모두 모였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보내는 이 엄청난 슬픔을 속연히 감당할수 있을은 당신이 살아온 스물 아홉해의 생애가누보다 값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요, 당신이 의롭게 지탱해 왔던 고통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까닭이요, 깊진내 창경원에서 뱉을뱉을 정신없이 돌아가는 웃음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신지오。세상에 헤어진다는 것만큼 당신의 건강을 그렇게 외면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서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외로운 나라 만들었단 말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보내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슬픔이 아니라 고독한 당신이 늘 즐겨 입던 작업복과 고무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달변은 아니었다라도 늘 정연히 펼쳐지던 논리, 古今과 東西의 文學을두루 얘기하던 그 해박한 입술, 유달리 우리의 風物과 人情, 累俗을 아끼며 우리 고유의 것에 묻혀사는 인간의 모습을作品化하기 위해 고심하던 열굴, 그 어느 것 하나 지울 수 없는 정겨운모습이었습니다。

東國의 文脈을 진단하며 정리하던 당신은 후배들에겐 지나치리만큼자상한 선배였고, 合評會場에서는 모두가 겁을내는 날카로운 젊은이였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도처에 있었습니다。강의실에도, 도서관에도, 合評會場에도 文學발표회에도, 中部市場에 질펀히 널려진 장사술에선 먼데 메아리처럼 그저 그렇게 또 울려오는 그 뜨겁게 타오르던 문학에의 열정을 이다지도 싸늘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오늘 이곳에는 생전에 당신과 文緣을 가졌던 동국의 同門들, 그리고 당신의 동료직원, 또 당신이 열과 정을 쏟아가며 가르치던 당신의 제자들이 모두 모였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보내는 이 엄청난 슬픔을 속연히 감당할수 있을은 당신이 살아온 스물 아홉해의 생애가누보다 값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요, 당신이 의롭게 지탱해 왔던 고통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까닭이요, 깊진내 창경원에서 뱉을뱉을 정신없이 돌아가는 웃음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신지오。세상에 헤어진다는 것만큼 당신의 건강을 그렇게 외면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서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외로운 나라 만들었단 말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보내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슬픔이 아니라 고독한 당신이 늘 즐겨 입던 작업복과 고무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달변은 아니었다라도 늘 정연히 펼쳐지던 논리, 古今과 東西의 文學을두루 얘기하던 그 해박한 입술, 유달리 우리의 風物과 人情, 累俗을 아끼며 우리 고유의 것에 묻혀사는 인간의 모습을作品化하기 위해 고심하던 열굴, 그 어느 것 하나 지울 수 없는 정겨운모습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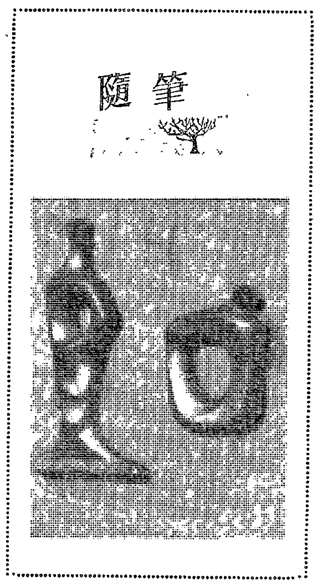
東國의 文脈을 진단하

그 뜨겁게 타오르던 文學에의 열정은 다 어디에 두고

◇「우리 집 식구는 못말려」의 리허설.

放學有感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관습적인 禁忌 사항들…



大海에 떠 있는 기분으로 이 大學生活을 영위해 왔는지 모른다。

우리가 가장 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획일화된 모방이며, 이 모방이 우리의 리포트에 기제되는 日常이 우리를 이렇게 비추고있다。우리는 이렇게 박락해 버렸다。그건 우리의 박락에 편승한 금 기사항들로 인해 우리는 더욱 할 말을 잃고 말 준다는 사실을 확인케해 줬다。

어쩔 수 없이 放學은 왔다。「어쩔수 없다」는 자조적인 표현을 빌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쩔수 없게 만든다。이날 학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쇠잔한 우리의 추한 몰골을 이제 다시 힘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우리는 이 大學生活을 영위하기 위해 그간 우리에겐 한달 보름이라는 적지않은 기간이 마련되어있다。동산이나 캠퍼스에 좋다。독서도 좋고 圖書館에 다녀도 좋다。다만 한가지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것은 텁텁하고 흉거나 즐겁거나 괴롭거나 그것들을 덕음과 추움과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분명히 받아드려야 한다는 점이다。학기초가 어제같은데 벌써 방학이다。왜 이렇게 빨리 대학의 방학은 다가오는가。

여름밤 벌레 울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과 피부를 싱그러운 젊음만이 남아있도록 세척해야할 것이다。

바람이 분다。세찬 폭우를 몰고오는 바람이 분에, 그 바람소리에 우리의 눈과 귀를 잃어버릴 우리의 기력을 회복할 마음의 무기력을 통해 길절이 주는 방학이 다。그러기 위해 우리에겐 한달 보름이라는 적지않은 기간이 마련되어있다。동산이나 캠퍼스에 좋다。독서도 좋고 圖書館에 다녀도 좋다。다만 한가지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것은 텁텁하고 흉거나 즐겁거나 괴롭거나 그것들을 덕음과 추움과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분명히 받아드려야 한다는 점이다。학기초가 어제같은데 벌써 방학이다。왜 이렇게 빨리 대학의 방학은 다가오는가。

여름밤 벌레 울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과 피부를 싱그러운 젊음만이 남아있도록 세척해야할 것이다。

바람이 분다。세찬 폭우를 몰고오는 바람이 분에, 그 바람소리에 우리의 눈과 귀를 잃어버릴 우리의 기력을 회복할 마음의 무기력을 통해 길절이 주는 방학이